

광주·전남 가뭄·홍수 잦아진다...다양한 물관리 대책 시급

기후위기 시대, 현재 상수도 공급체계로는 자연재해 대응 못해 남부지역 지하수 고갈 더 심할 듯...주암댐-장흥댐 연결 등 필요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기후 변화로 광주·전남에서 갈수록 가뭄이 심화되고 홍수가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가뭄·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광주·전남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댐을 건설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지역시민단체 시민행복발전소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대응 가뭄·홍수 예방 물관리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 등 남부 지방은 중부 지방에 비해 가뭄이 심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효과와 무관하게 2100년까지 가뭄 빈도가 증가하고 지하수 자원이 고갈돼 지역 간 수자원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상 저위도의 건조·아열대 지역일수록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 고갈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에 비해 남부 지방의 강수량이 더 크게 줄고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광주·전남의 상수도 공급체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35년 기준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공업용수는 공급량은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할 때 126만 4000t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최대 수요량인 183만 7000t의 68.8%밖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수요량 19억 4000만, 공급량 17억 8100t으로 물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22-2023년 광주·전남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뭄이 반복 발생할 때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2023년 가뭄 당시 동북댐의 저수율은 2023년 4월 4일 기준 18.28%, 주암댐은 20.3%로 떨어졌다. 평균 저수율이 동북댐 60%, 주암댐 57%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물 부족에 처했던 것이다. 이 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지하수가 말라버려 농업용수를 끌어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타 지역에서 식수를 조달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우선 2040 국가수도기계획에서 1단계 대책으로 내놓은 주암댐-장흥댐 연결과 같이 물공급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법인 시민행복발전소가 주최하는 기후위기대응 가뭄·홍수 예방을 위한 물관리 대책방안 토론회가 10일 광주시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렸다. 이춘석 시민행복발전소 이사(왼쪽)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장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흥댐의 용수 여유량(1일 11만)을 가뭄시 주암댐으로 끌어오고, 물이 부족한 여수·광양 산간에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해 가뭄시 생활·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화순 동북천,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에 추가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환경단체 측에서는 신규 댐 건설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

더러 광주·전남의 경우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한 뒤 농업·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자원 활용 노력조차 하고있지 않는다"며 "일단 인구는 줄어 들지만 1인당 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이후에도 물이 부족하다면 물 부족 예상량을 정확하게 예측해 대응하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두환·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법 개정”

오월 단체 “범죄 수익 후손 대물림 원천 차단해야”

오월 단체들이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법” 등 전씨의 미납 추징금, 노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7월 법원이 정부의 연회동 주택(전씨 생전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2월 10일자 광주일보 6면)한 데 따라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채권도 소멸했으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전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원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체는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전씨의 불법 재산을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며 “노씨 일가 또한 추징금 완납을 핑계로 20년 넘게 비자금을 숨겨 온 사실이 드러나 최근 조세법 처벌법 등 혐의로 고발됐는데, 전씨 미납 추

징금 환수가 무력화될 상황에 놓이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5·18 광주 학살의 원흉을 단죄하려는 역사적 정의는 철저히 부정당했다”며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이들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모두 회기 종료 등으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와 정부, 국회는 전·노씨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낚아채고 관련 법안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설범식 고법원장 취임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새 수장들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용기(60·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방법원장과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각각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통 키워드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두 수장 모두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신뢰받는 법원,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남원 출신인 장 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애정만큼이나 감당하기 벅찬 외부의 거센 도전과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공정한 재판에서 처음 싹터 자라고 확립되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형평’은 좋은 결론 못지않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선책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신속재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제시와 피드백(Feedback), 재판부 사이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 지법원장은 광주 금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00년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

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설 고법원장도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심리모형을 연구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면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

 **장용기 지법원장**

 **설범식 고법원장**

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설 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천안고·한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장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원, 성실 교섭 나서라”

금속노조 호원지회 촉구

금속노조 호원지회(노조)가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10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호원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광주교협은 지난 5일 금속노조가 주식회사 호원 측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유무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법원은 불법으로 만든 노조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자격없는 노조가 맺은 협약은 무효이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가 금속노조이며 교섭권도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생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